



미 증시, 셧다운 우려완화 및 물가 추가하락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15 일(수) 미국 증시는 셧다운 우려 완화, 미 생산자물가지수 추가 하락 및 긴축 종료 기대감에 위험선호심리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으나, 예상치를 상회한 소매판매 지표에 시장금리가 반등하고 성장주에서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상승폭은 제한. (다우 +0.47%, S&P500 +0.16%, 나스닥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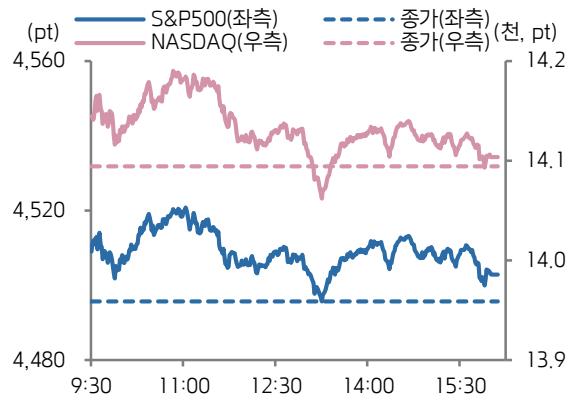
미국 10 월 PPI MoM -0.5%(예상 0.1%, 전월 0.4%) 기록하며 작년 5 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전환, 근원 PPI 0.0%(예상 0.3%, 전월 0.2%) 역시 예상치 하회. 휘발유 MOM -15.3% 기록하며 상품가격 하락의 80% 이상 기여, 서비스 비용 역시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보합.

10 월 소매판매 MoM -0.1%(예상 -0.3%, 전월 0.9%)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으나, 자동차 및 휘발유 제외한 근원소매판매 MoM 0.1%(예상 0.2%, 전월 0.8%)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MOM 자동차 및 부품 -1%, 가구 및 가정용품 -2% 등 큰폭으로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 반면 온라인 판매 0.2%, 헬스케어 1.1%, 음식료 0.6% 상승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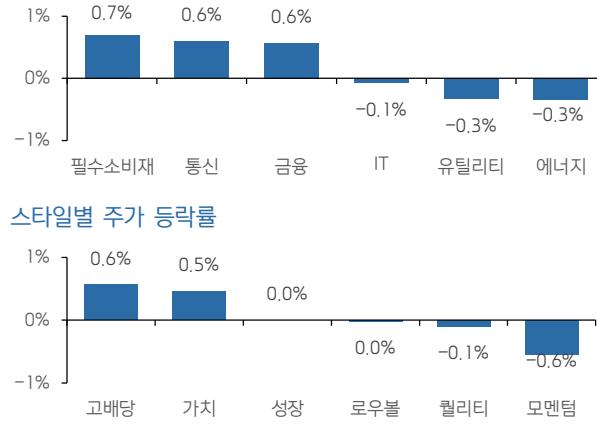
현지시간 15 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APEC 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 진행. 바이든 대통령은 경쟁이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아야 한다고 연설했으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에게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며 한쪽이 다른 쪽을 개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갈등과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일각에서는 단절된 양국 간 군사 소통 채널의 복원, 구체적으로 1998 년 미중이 체결한 해상군사통신협정 복원이 가시적 성과가 될 것이라고 분석.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7%), 통신(+0.6%), 금융(+0.6%) 강세, 에너지(-0.3%), 유저리티(-0.3%), IT(-0.1%) 약세. 타겟(17.87%)은 2 분기 연속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출원가 및 재고자산 급감으로 EPS 가 시장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급등. CEO 는 임의 소비재 부문이 여전히 약세지만 뷰티 제품 수요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3 분기의 이익 증가는 철저한 재고 관리와 비용 관리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 엔비디아(-1.55%)는 H200 반도체 칩 출시 기대감에 10 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신고가 경신 후 소폭 하락 마감.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86.67	+2.2%	USD/KRW	1,300.72	-2.12%
코스피 200	333.96	+2.26%	달러 지수	104.37	+0.31%
코스닥	809.36	+1.91%	EUR/USD	1.08	+0.01%
코스닥 150	1,288.45	+1.78%	USD/CNH	7.26	+0%
S&P500	4,502.88	+0.16%	USD/JPY	151.27	-0.06%
NASDAQ	14,103.84	+0.07%	채권시장		
다우	34,991.21	+0.47%	국고채 3년	3.745	-11.2bp
VIX	14.18	+0.14%	국고채 10년	3.817	-16.3bp
러셀 2000	1,801.22	+0.16%	미국 국채 2년	4.912	+7.6bp
필라. 반도체	3,712.09	+0.72%	미국 국채 10년	4.531	+8.4bp
다우 운송	14,961.98	+0.72%	미국 국채 30년	4.695	+7.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15.53	+0.55%	WTI	76.5	-0.21%
MSCI 전세계 지수	684.16	+0.62%	브렌트유	81.18	-1.56%
MSCI DM 지수	2,975.19	+0.4%	금	1963.2	-0.06%
MSCI EM 지수	983.51	+2.54%	은	23.52	-0.1%
MSCI 한국 ETF	62.34	+0.73%	구리	371.35	-0.1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8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3.1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1.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2. 미중 정상회담 관련 뉴스풀로우
3. 11 월 이후 순매수를 기록 중인 외국인의 매매패턴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 10 월 CPI(생산자물가)에 이어 10 월 PPI(생산자물가)도 헤드라인(1.3%YoY vs 컨센 1.9%), 코어(2.4%YoY vs 컨센 2.7%)도 예상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연준이나 시장 모두 인플레이션 부담을 한층 덜어낸 상황. 10 월 소매판매(-0.1%MoM vs 컨센 -0.3%)은 예상보다 웃도는 수치였지만, 추세를 보면 9 월(+0.8%) 증가세에서 7 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소비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연준은 상당기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을 고수하겠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전쟁과 같은 외부 쇼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을 베이스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적절

시한으로 설정된 17 일(금)까지 진통을 겪을 줄 알았던 미 예산안 협상은 본 2 단계 임시예산안(1 단계 보훈, 교통, 주택, 에너지 등 예산안 '24 년 1 월 19 일까지, 국방, 국무 등 예산안 '24 년 2 월 2 일까지)이 하원을 통과한 상황.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도 큰 잡음 없이 통과될 것인 만큼, 시장이 잠재 불안 요인이었던 셋다운 리스크도 모면한 모습.

이처럼 11 월 FOMC, 고용, CPI 등을 순차적으로 잘 넘기면서 주요국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은 이전에 비해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양상. BofA 의 11 월 글로벌 펀드매니저 서베이(조사기간 11 월 3~9 일) 상 주식형 자산에 대한 비중이 2022 년 4 월 이후 처음으로 비중 확대(10 월 -4%에서 11 월 +2%)로 집계되는 등 자산배분 관점에서도 증시 전반적인 수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물론 상기 서베이를 보면, 지정학 불안(31%), 고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25%), 경기 침체(23%), 시스템 신용 위기(14%) 등이 잠재적인 주가 충격을 가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 또 전일자 데일리 코멘트에서 강조했다시피, 연준의 긴축 사이클 종료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긴 하나, 내년의 메인 이벤트인 금리 인하를 놓고 인하 배경과 인하 시점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시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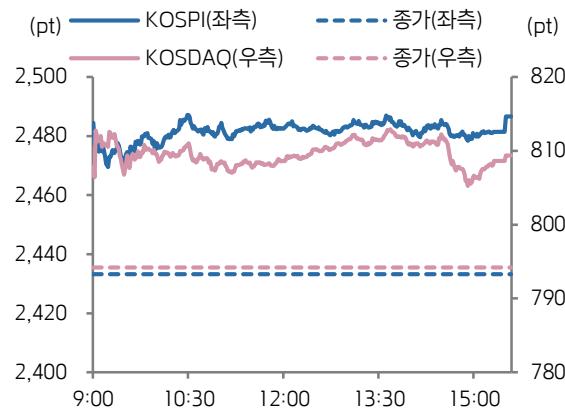
다만, 이들 변수들은 시장에 알려진 불확실성이자 일정부분 내성이 생긴 불확실성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 이들은 실적시즌 종료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부재한 현재 시점에서, 지수 하단을 낮추기보다는 차익실현 명분을 제공하면서 지수 상단을 중간중간 제약하는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미 CPI 컨센 하회에 따른 금리 급락, 원/달러 환율 급락 등 긍정적인 미국발 재료 속 장중 발표된 중국 실물 지표 개선 소식, 미 예산안 하원 통과 소식 등에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동반 순매수세를 유발하면서 2 거래일 연속 급등 마감(코스피 +2.2%, 코스닥 +1.9%).

금일에는 미 PPI 및 미 소비지표 둔화 등에 따른 연준의 긴축 약화 기대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국내 장 개시전 발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 결과, 최근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압력을 소화하면서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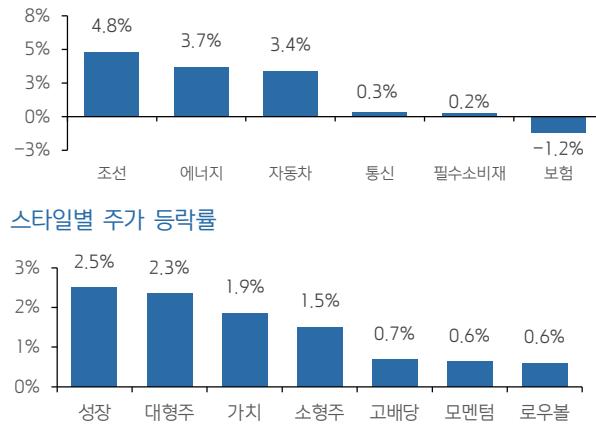
한편, 기술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환경을 업데이트 해보면, 지난 9 월 말을 기점으로 중장기 추세선인 200 일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추세 붕괴 우려가 높아졌었으나, 10 월 말을 기점으로 주가 복원에 나서면서 200 일선(2,502pt) 상향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중. 지난 주 이후로 발생한 수급 왜곡 현상의 여진은 남아 있겠지만,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급 환경이 안정된 코스피는 200 일선 안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 고려 시, 현시점에서는 반등 시 차익실현에 동참하는 비중 축소 작업보다는 기존의 비중을 유지하면서 주중 남은 기간을 보내는 것이 적절.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기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짰게 됩니다.